

Viva, 메탄올 248만톤 플랜트 건설

2006년 3/4분기 가동 예정 ... Snamprogetti가 엔지니어링 업무 담당

Viva Methanol은 Snamprogetti와 메탄올(Methanol)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및 장비조달(Procurement) 계약을 체결했다.

메탄올 플랜트는 나이지리아 Lagos 소재 Methanol-to-Olefins-to-Polymers 콤플렉스에 건설되며 아직 플랜트 건설기업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.

Methanol-to-Olefins-to-Polymers 콤플렉스는 Ibeju Lekki 지역의 Ibeju Lekki Export Processing Zone에 위치하게 될 예정이다. 메탄올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Single-Train 플랜트로 생산능력이 일산 7500톤(연산 248만톤)이다.

싱가폴 Eurochem Technologies의 자회사인 Viva는 메탄올 플랜트에 Haldor Topsoe의 Autothermal Reforming 기술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MTO(Methanol-to-Olefins) 플랜트에는 UOP와 Norsk Hydro의 합작기술을 채용하고 있다.

MTO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에틸렌(Ethylene) 및 프로필렌(Propylene)은 HDPE(High-Density Polyethylene) 40만톤 및 PP(Polypropylene) 40만톤 플랜트에 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다. HDPE 및 PP 플랜트는 2006년 4/4분기 가동 예정으로 Basell의 기술을 채용하게 되며 건설기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.

메탄올 및 Olefin 플랜트는 각각 2006년 3/4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.

Viva는 메탄올 프로젝트를 위해 2002년부터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14>